

##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 남북교회 부활절연합예배

4월 11일, 오전 5시, 여의도광장에서,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맞아 새벽5시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다.

금년에는 특별히 북한의 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다른 해와는 또다른 의미가 있기도하다. 부활주일 새벽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 민족복음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제 7천만 겨레의 꿈이며 희망인 통일을 바라보며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예배로 드릴 것을 계획하기까지 이르렀다.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대회장 김창인 목사)는 이런 중요한 때에 모이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교회가 협력하고 온 교우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이복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예배위원회에서는 당일 새벽5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①여의도 순복음 교회 옆 고수부지(마포대교 방면 차량) ②KBS본관 앞 광장(서울교 방면차량)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신성종 목사 인도

또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며 현대에서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고난주간인 4월5일(월)부터 4월 10일(토)까지 매일 5시 본당에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인도하게 된다.

금요일(4월 9일) 금식일,  
금식미는  
결식노인금식사업으로 사용

한편 고난주간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금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중 매일 아침 한끼씩 금식), 그 금식미를 거두어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결식노인 금식사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 1. 김창인 원로목사

· 4월 5일(월)~8일(목) 은평중앙교회 부흥회 인도

## 2. 당회장 신성종 목사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요일)  
· 4월 5일(월), 전국장로연합회 설교(영락기도원)  
· 4월 6일(화), 남서울교회 특강  
· 4월 8일(목), 수도노회 여전도회연합회(22회 정기총회 설교)  
· 4월 8일(목), 충현살림경로대학 개강 예배 설교

## &lt;주간충현&gt;

## 4월부터 색깔이 바뀝니다

<주간충현>의 색깔이 4월부터 갈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주간충현>이 현재 사용해온 갈색은 추운 가을과 겨울에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위해 사용했고, 짙은 녹색은 봄과 여름에 시원한 감을 주기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오늘 주일에배시 성찬식

감사·회개·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할 때 큰 은혜가 있어

교회는 오늘 주일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수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기로 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충현살림경로대학 개강

4월 8일(목)부터 6월 10일까지

충현살림경로대학(부장 김경철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이 오는 4월 8일(목) 오전 11시 봉사관 지하 1층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1993년도 1학기를 개강한다.

금년도에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이는데 오전에는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신앙, 건강, 가정 등의 특강과 오후에는 부별 특별활동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서예, 찬양, 원예, 꽃꽂이 등의 시간을 갖고, 2차례의 야외학습(민속촌, 계룡교회)도 가질 계획이다. 1학기는 6월 10일에 마쳐진다. 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회내외 및 불신자도 입학할 수 있다.

## 묘소복구 청구 요망

-1년에 2만원, 동산관리비 납부도-

동산관리부(부장 박치민 장로)는 금년도 한식을 맞아 묘소를 찾아보는 교우들이 묘소복구 및 손질을 요청할 시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은 동산관리부나 사무국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동산관리부는 묘소 1기당 연 20,000원씩의 관리비도 동산관리부나 사무국에 납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우들의 대화와 교제의 장인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에서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 일들을 함께 나누어 서로의 기쁨과 감사를 충만케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특히 좀 늦었지만 <계간충현> (봄)호를 준비하며 여러 교우들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의 종류는 신앙서, 신앙간증, 책소개, 잊혀지지 않는 사람, 여행문, 일기문, 기도문 소개하고 싶은 일, 미담 등 모든 형식의 글입니다.

또한 원고를 쓰지 못하실 경우, 이런 내용을 실렸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 취재하여 원고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연락처 : 선교관 3층 303호 &lt;주간충현&gt;편집실

· 전화 552-8200(교환 348,349번)

##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윤영탁 협동목사

## 합동신학교 4대 교장에 취임

구약학 전공의 온유하고 겸손한 학자

우리 교회에서 지난 1974년부터 지금까지 협동목사로 일하고 있는 윤영탁 목사가 합동신학교 제 4대 교장으로 결정되고 오는 4월 16일(금) 합동신학교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로 교장에 취임하는 윤영탁 목사를 잠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축하합니다. 소감은?

▶ 부족한 사람을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김창인 목사님과 충현교회가 키워 준 덕택인줄 알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생기니 더욱 고마운 마음이 깊어집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 충현교회는 언제부터?

▶ 군대시절과 외국유학시절을 빼놓고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요. 1962년 미국으로가서 공부하고 그후 이스라엘, 유럽 등에서 공부하고 1973년에 귀국했습니다.

윤 목사는 미국 카넌트신학 대학원에

서 구약학을 전공. 1974년 귀국 우리 교회에 와서부터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새 가정부, 영어예배부, 동시통역 등의 부서에서 교육방면에 일을 하며 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과 깊이 있는 성경강해로 많은 교우의 신앙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74년 귀국후 충신대학원, 합동신학교 등에서 계속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키우고 목회지망생들에게 자상한 배려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 목사님은 후학을 많이 키우셨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들의 은사와 노력과 능력에 따라 된 것이지요. 저는 그저 신학교 교수로서 제자들이 자기의 길을 잘 갈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도와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사회와 교회와 각 개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2000년을 앞두고 성숙해져가는 합동신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취임하는 윤영탁 목사를 위해 기도와 마음으로 힘껏 도와드려야 할 것이다 <형>

충현장단



#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마 13:44-46)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 13:45,46)

본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처럼 하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의 야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1. 두 비유의 비교

본문에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이 회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화 비유는 애써서 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진 점에 비해 진주 비유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화 비유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 반해서 진주 비유는 진주가 굉장히 값지고 비싸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 2. 감추어진 보화

본문에 보면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보화는 아무곳에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보화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만 구원도 영생도 그것도 보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 보화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바랄 수 없는 바로 그런 보화입니다. 또 복음의 진리는 보화입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보화가 될까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보화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

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일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화를 찾으려고 특별히 애쓰거나 힘쓴 것도 아닌데,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찾아서 찾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 비유에 보면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화 비유는 그저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다가 찾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 엽전, 혹은 금은보화 같은 재산들을 간수할 때 밭에다 묻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도 6·25사변 전에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 은행처럼 밭에다 보화를 감춰두는데 아 그만 주인이 유언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일 년이 가고 이 년이 가고 세월이 지나 어떤 사람에게 그 밭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업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 우연하게 귀한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밭은 바로 세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는 이런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에서 지혜도 얻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밭을 파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습니까? 문제점이 바로 거기있습니다. 성경을 파지 아니하니까

보화를 발견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것이 보화인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것과 바꾼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그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부가치한 것하고 바꾼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 3.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번째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 상인, 기업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도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의미에서 장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기꾼과 강도가 따라다닙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 주느냐? 아 그거보다 세상에 좋은 것 얼마든지 많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화를 사기꾼들이 자주 바꾸자고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바꾸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상인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과연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 이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를 알고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 못하면 사업을 해도 결국 밀치고 갑니다. 이것은 신령한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귀중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 4.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삼

귀한 보화, 값진 진주를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야 합니다. 반드시 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봅니다. 마태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도 버렸고 자기의 돈도 다 버렸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학자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버릴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보화, 값진 진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의,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말 귀한 의가 내게로 전달됩니다. 또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습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형식적인 유교적 관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보화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 이제 설교를 마치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값진 진주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좀 가치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가장이고 집이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조금 희생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바칠 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 조금도 바칠 줄을 몰라요.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고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보화이고 영생이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값진 보화를 사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위력

말의 위력

사람의 말은 두 가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창조하는 능력이고 다음은 파괴하는 능력이다. 본래 이 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고, 모든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말은 창조보다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거듭날 때에 이 말의 위력은 창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말이 보다는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거듭나게 되면 말은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남을 헐뜯고, 저주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급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 제4회 충현올림픽 “연합교구 팀 확정”

소망팀(제1연합교구), 믿음팀(제2연합교구), 사랑팀(제3연합교구),

충성팀(제4연합교구) 순으로 결정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교역자, 장로 대상으로 1차 설명회

제4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우기진 장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301호실에서 조직위원 및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연합교구로 편성된 팀구성 추천을 완료했다.

추천에 의해 확정된 연합교구별 팀 구성엔 제1연합교구가 소망팀, 제2연합교구가 믿음팀, 제3연합교구가 사랑팀, 제4연합교구는 충성팀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팀색깔이 결정되었으며 당일 좌석·입장순서·가장행렬 및 경기 대진표 등이 자동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각 연합교구별로 모임을 갖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연합교구팀의 소속교구 및 팀명칭·색깔 도표는 다음과 같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오늘(4월4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교역자·장로 대상으로 제1차 설명회를 갖는다.

| 연합교구팀                        | 팀명칭 | 팀색깔 | 좌석  | 입장순서 | 가장행렬 |
|------------------------------|-----|-----|-----|------|------|
| 제1연합(1, 4, 15, 16, 19, 22교구) | 소망  | 파랑  | 남동쪽 | 3    | 2    |
| 제2연합(2, 5, 6, 18, 20, 23교구)  | 믿음  | 노랑  | 남서쪽 | 4    | 1    |
| 제3연합(7, 8, 13, 14, 21교구)     | 사랑  | 빨강  | 북동쪽 | 2    | 3    |
| 제4연합(3, 9, 10, 11, 12, 17교구) | 충성  | 초록  | 북서쪽 | 1    | 4    |

▼ 지난번 올림픽에서의 열띤 경기모습



## ♣ 살며 생각하며 ♣

### 양심 회복 운동

김 경 속  
(집사, 2교구)

불치의 병이라는 암도 정복해 나갈 정도로 의술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 마음이 상처로 찢겨 있다면 꿰매 것이고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깨끗이 닦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치와 향락, 퇴폐풍조 등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회의 병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 '우리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고 다짐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의술로 고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등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료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약 2:17)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새 한국을 창조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부터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막 11:17)하시며 성전을 깨끗케 하였던 주님을 본받는 일 부터 실행해 봄이 어떨까 한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성전청결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당연히 해야 할 교회당을 깨끗이 하는 일부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끔 교회당 내에서 떨어진 휴지를 허리 한번 굽히기 싫어 지나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던 나 자신을 상기해 본다. 즐기 전에 버리지 않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교회의 물건들을 함부로 하며 마음껏 더럽히는 버려진 양심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서슴치 않고 손톱을 깎아 바닥에 버리는 성도를 봤을 때 과연 교회를 다니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양심이 볼 수 있는 유형의 것이라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 심정이다.

비록 미화부의 집사님들이 성전 구석 구석을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치우고 있지만 각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버려진 휴지를 줍듯 버려진 양심을 줍는 일 부터 시작함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예수님의 초상화

김 운 섭  
(집사, 제15교구)

그릴까 말까 망설이다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이천년전  
로마병정이 씌운 가시관  
벗기지 못하고  
내가 또  
가시관 씌워 버렸네

빨강연필 손에 들고  
칠할까 말까 떨리는 손  
예수님께  
세마포 아닌 홍의가 웬말  
벗길수도 입힐수도 없이  
내가 또  
홍의를 입혀 버렸네

아픈 얼굴 고통의 눈  
보고 그릴때  
눈감은채 외면한 내 눈동자  
흘러내리는 붉은 맥박의 선혈  
그릴까 말까 하다가  
새파랗게 질린 초상화로  
그리고 말았네

예수님의 이 모습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나의 잘못된 눈과 손과 마음  
눈물로 용서를 빌며  
다시는 가시관 홍의 그리지 않고  
구름타고 오실 예수님  
마음속 화판에 그림 그리며 기도 드린다.

## 토막소식

◆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지난 4월 3일(토) 오후 6시 만나홀에서 기혼자 모임을 갖고 서로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친교와 교제를 나누었다.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선교관 1층으로 장소를 옮기고 더욱 새로운 활기로 가득차 있다. 집회실 이전 관계로 연기되었던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를 지난 주일 가졌고 오늘(4월4일)은 서명숙 선생이 인도하는 연구수업이 있게 된다.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부활주일을 맞아 계란콘테스트를

하여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는 계란 제출자를 시상할 계획이다.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학동, 논현국민학교에서, 오후 3시에는 교회주변에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한다.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4월 25일 자체 성경암송대회를 앞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단락으로 나누고 예쁘게 프린트하여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4월에 초청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오는 4월 4일, 1학기 성경교사가 4월 11일에는 성경이야기대회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중이다.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부활절은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각 반별로 달걀 콘테스트대회를 갖는다.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4월 5일, 충현기도원에서 중등2부 전체친교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활주일에는 달걀바구니 꾸미기가 있다.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해 목사)의 성극반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11일 12시 30분에서 20분간 교육관 504호에서 '어느 대장장이의 고백'이라는 기념 성극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제1차 미래지도자운동을 4월 첫주부터 1개월간 '전도'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표어는 '나도 한 사람'

◆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후 만나홀에서 연합기도회로 모여 대학·청년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갖는다.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4월 4.5일 임원수련회, 조장 수련회, 찬양인도팀 합시바 수련회를 각각 갖는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조개편을 통해 신선한 분위기 가운데 집회를 갖고 있다.

◆ 장년2부(부장 이하영 장로, 지도 신평근 목사)는 3월28일 반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고 반제적 10명에 10명이 참석한 여8반의 신소자 선생반이 1등을 했다.

◆ 장년4부(부장 강순용 장로, 지도 정규남 목사)는 3월 28일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갖고 1등에 9-1,2반 2등 11-1반, 12-2반 3



등에 17-1,17-2,14-1을 뽑았다.

◆ 선교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는 지난 3월 26일(금) 뉴질랜드로 떠나는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선교사 가족을 김포공항에서 환송하며 앞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 고국 교회의 소식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호주 땅에 정착한 저희 부부가 사랑하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곳은 서서히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23°~25°로 썩 아주 좋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주간충현> 등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얼마 지나지 않은 세월이지만 충현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소중했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좀더 열심히, 좀더 충성하고 좀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하고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곤 합니다.

시드니에는 약 60여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100명이하 20명 정도의 작은 교회이고 자기 건물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곳은 4, 5개 정도입니다. 이곳에 '시드니 충현교회'라고 있는데 고신측 김인성 전도사가 시무하시고 충현교회와는 별 상관 없이 북방선교에 관심이 많은 충현교회가 자신의 비전과 같아서 이름을 충현교회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충현교회와 관계를 가졌던 김태현 목사님은 '시드니 서울교회' (Roseville 498-7904)에서 시무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Epping'이라는 곳에 있는 '시드니 새순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신 데 송태근 목사님과 충신 동기라 하십니다. 교인은 100명 정도이고 설립된지 1년 정도밖에 팔복할 만한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도 호주 교회의 별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Q.T(매일성경)를 하고 있고 선교에 남다른 관심과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파송된 경위와 목적을 말씀 드리고 상의 하였는데 흔쾌히 저의 뜻을 승낙 하셔서 그곳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딸 은송이는 Language School에 다니고 있고 진태, 진영 두 아들은 국민학교에 편입하여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한국에서 아직 이삿짐이 오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고국에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차차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 · 기도제목 ·

1. 언어가 숙달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2. 저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처치가 마련 되도록
3.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 주소 : 29 Beechworth Rd Pymble N.S.W 2073, Australia

· 전화 : 44-4460(서울에서 001-612-44-4460)

이 기 성 · 박 정 아 올림

##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4월5일(월)~8일(목) 은평중앙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 매주 월요일 목회자세미나 특강,  
· 4월 5일(월)전국 장로연합회설교(영락기도원),  
· 4월 6일(화)남서울 교회 특강,  
· 4월 8일(목)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설교(충현교회),  
충현경로 대학 개강예배 설교
2.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 나를 위하여 희생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 1. 제4회 충현올림픽

- 오늘(4월 4일)까지 표어 및 패킷걸 모임을 마감하고 심사하여 다음주에 발표함.
- 3월21일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종목 및 일정표 확정함.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 30분까지 올림픽 준비, 개최예배, 입장식, 충현올림픽 1, 점심식사, 충현올림픽2, 폐회식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종목은 개인에서부터 전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20여개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음.
- 3월 28일 조직위원회에서 4개팀의 색깔과 순서를 추첨에 의해 결정,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감.
- 4월 4일 장로 및 교역자에게 설명회

#### 2. 매주 선교찬양대

- 매주 주일 찬양예배 후 편습에 여념이 없음. 기량이 날로 발전한다는 소견
- 일정(6월 25일~7월 6일)이 다가옴에 따라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

#### 3.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대회

- 기본요강 확정코 세부조직 및 대회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주일 <주간충현>, 208호 1면 머리기사인 성경암송대회 팀위 중 대학부, 청년부의 창세기 1~8장을 로마서 4~8장으로 바로 잡습니다.